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 NO | 대상자명 | 관 계 | 구체적 전도방법 | 영적수준 | 비 고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 NO | 성 명 | 기도제목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Father's Day(6/21)
 - 목자부흥의 밤(6/30)
 - GMI선훈생 16기 미주훈련(7/6~10/4)
 - 복음 통일 컨퍼런스(7/14~17)
 -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 및 목자 부흥의 밤(7/28)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6. 14

6월 둘째 주: 성령님께 붙잡혀 삽시다.
(사도행전 16:11~18)

■ Welcome

요즘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이 끌리고 있나요? (걱정, 바쁜 일, 즐거운 것 등 무엇이든)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사도행전 16:11~18

■ 서론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산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붙들려 산다. 어떤 사람은 욕망에 끌려 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께 붙들려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한다. 한 여인은 점치는 여종이고, 다른 한 여인은 루디아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성경은 점치는 여종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행 16:16)이라고 기록한다. 점을 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상태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과 미신,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

반면 루디아는 자주 장사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만족만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귀 기울여 들었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실 때 권력자나 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한 사람, 루디아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삶이 한 가정과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요즘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관찰 질문:** 성령님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떠한가?

해답 1.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된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 선교의 문이 막히자 기도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 주셨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자 그는 가장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자리를 찾게 된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 6:18) 라고 말씀한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온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놀랍게 간수와 그의 집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성령님께 붙들린 삶은 기도하며 환경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 **적용 질문 1**

1) 솔직히, 요즘 기도가 살아 있나요? 아니면 의무처럼 느껴지나요?

해답 2.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성령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모여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 있는가?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을 보면 “저 영혼이 예수를 믿는가” 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불드시는 역사이다. 복음을 전하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지금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성령님께 붙들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전도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아야 한다. 만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보아야 한다.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 **적용 질문 2**

1)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주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요?

해답 3. 사명에 붙잡힌 마음이 된다.

생존으로 사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같은 일을 해도 생존의식을 가지고 하면 삶이 무겁고 지치지만, 사명으로 하면 그 삶에 의미와 방향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업을 하던 루디아가 성령을 받은 후에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집으로 청하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사역을 하였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던 것은 사명에 붙들렸기 때문이다

(행 20:23-24)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충만을 받아 성령께 붙들리면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된다.

❁ **적용 질문 3**

1) 지금 내 삶은 생존입니까, 사명입니까?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열 수 있나요?